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엔저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소비재보다 중간재 타격이 더 크다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엔저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소비재보다 중간재 타격이 더 크다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엔/달러 변동이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4
3. 시사점	6
【별첨】	8
【HRI 경제 통계】	11

< 요약 >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가치 하락 지속 우려

-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전망
 - 엔/달러 환율 2013년 5월 31일 96.4엔으로 2012년 1월 평균 대비 약 23.8% 절하
 - 아베정부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조치로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전망

엔저가 산업별 수출입(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 ① 전반적으로 수출증감률이 수입증감률보다 낮아 무역흑자 감소 압력 증대
 - 단, 기계/가전은 각각 일본제품과 한국제품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으로 영향 미약
- ②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감소 혹은 증가율 둔화 압력
- ③ 소비재 품목 수입은 단가하락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효과로 총수입 증가
- ④ 중간재 수입은 수출침체에 따른 수입유발효과 축소로 총수입 감소
 - 단, 석유화학은 국가간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수입선 대체 효과가 크게 작용

<2013년 연평균 엔/달러 환율 100엔(연평균 20% 절하)시 주요 품목의 수출입 영향>

		수출증감률	수입증감률	무역수지 증감
총수출입		-2.6%	-2.5%	15억불↓
중간재 (자본재)	철 강	-11.9%	-4.9%	29억불↓
	기 계	-1.7%	-11.6%	33억불↑
	석유화학	-0.2%	9.2%	15억불↓
	I T	-1.8%	-0.7%	16억불↓
소비재	자동차	1.0%	7.4%	1억불↑
	가 전	5.6%	0.3%	7억불↑

주: 증감률 및 무역수지 증감은 2012년 대비.

시 사 점

- 첫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급변동을 방지 대책 마련
- 둘째, 단기적으로는 엔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와 외환 리스크 관리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셋째, 중간재 수입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요 핵심 고기술 수입 중간재에 대한 국산화 노력이 필요
- 넷째,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화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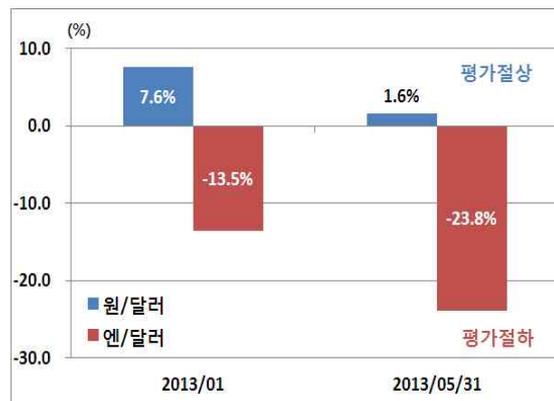
1. 개 요

-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질적 금융완화 조치를 결정한 이후 엔화의 가치 하락 기조가 지속
 -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 晋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함¹⁾
 - 지난 2012년 1월 평균 엔/달러 환율인 77엔에 비해 2013년 1월 평균 환율(89엔)은 13.5%, 2013년 5월 31일 현재 환율(101엔)은 23.8% 절하됨
- 반면 원화의 경우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
 - 원/달러 환율은 2011년 하반기부터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1,056원(2013년 1월 16일)까지 하락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다시 1,128원(2013년 5월 31일)으로 상승함
 - 그러나 2012년 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인 1,146원에 비해 2013년 1월 평균 환율(1,065원)은 7.6% 절상, 2013년 5월 31일 현재 환율(1,128원)은 1.6% 절상되어 가치가 하락한 엔화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황

<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



< 원화 및 엔화의 달러 대비 절상·절하율 >



자료: 한국은행

주: 달러화 대비 절상·절하율은 2012년 1월 평균 대비 각 해당 시점 환율로 산출

- 1) 아베노믹스는 매월 약 7조엔 정도의 장기국채를 매입하여 장기국채 보유잔고를 연간 약 50조 엔까지 확대하고, 자산가격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J-REITs)의 잔액을 각각 연간 1조엔, 300억 엔씩 증가하도록 매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베정부의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

2. 엔/달러 환율 변동이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총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²⁾

○ 엔저로 국내 수출증감률이 수입증감률보다 낮게 형성되어 무역흑자 감소 압력 증대, 2013년 엔/달러 환율 100엔시 15억 달러의 무역흑자 감소 압력 발생

- (총수출) 엔저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로 엔/달러 환율이 2013년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국내 총수출은 -2.6%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엔저 현상 지속으로 2013년 연평균 엔/달러 환율이 100엔으로 유지될 경우 국내 총수출은 약 5,334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감소할 전망
- 엔저 현상 심화로 엔/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연평균 110엔 및 120엔에 달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각각 5,202억 달러(-5.2%), 5,080억 달러(-7.3%)로 감소할 전망

- (총수입) 엔/달러 환율이 2013년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약 -2.5% 국내 총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13년 연평균 엔/달러 환율이 100엔으로 유지될 경우 국내 총수입은 5,066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5% 감소할 전망
- 엔/달러 환율이 2013년 연평균 110엔일 경우 국내 총수입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5,019억 달러, 120엔일 경우 -4.2% 감소한 4,980억 달러로 전망

- (전체 무역수지) 엔저 현상 심화는 수출을 수입보다 크게 감소시켜 2013년 무역수지가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268억 달러로 전년대비 -15억 달러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엔화 가치 급락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현대경제연구원, 2013.5.24.)' 재인용.

< 엔/달러 환율에 따른 2013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전망 >

(단위: 억 달러)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00엔 (20.2%)	5,334 (-2.6%)	5,066 (-2.5%)	268 (-15억)
110엔 (27.4%)	5,202 (-5.1%)	5,019 (-3.4%)	183 (-100억)
120엔 (33.5%)	5,080 (-7.3%)	4,980 (-4.2%)	100 (-182억)

자료: 한국은행 및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엔/달러 환율 꺾호는 2012년 평균 79.8엔 대비 2013년 평균 100엔, 110엔, 120엔시 절하율

2) 원/달러 환율은 1,100원으로 가정

3) 무역수지 꺾호는 2012년 무역수지(283억 달러) 대비 변동폭을 의미.

2) 주요 산업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³⁾

○ 상당수 품목들이 수출증감률이 수입증감률보다 낮아 무역흑자 감소 압력 증대

- 엔저에 따른 산업별 수출입 영향을 고려시 IT, 철강, 석유화학 산업 등의 순서로 무역흑자 규모가 감소할 전망
 - 철강, IT,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무역수지는 각각 29억, 16억, 15억 달러의 감소 압력 발생
- 단, 자동차, 기계 및 가전 품목은 일본제품 수요와 한국제품 수요의 가격 비탄력적 성격이 강하여 엔저에 따른 무역수지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연평균 100엔시 무역수지의 변화 압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기계 산업의 경우 100엔시 수입증감률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33억 달러 흑자 압력이 발생, 가전은 수출증감률이 플러스를 기록하여 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
 - 이는 기계 품목은 한국수입시장에서 일본제품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 요인으로, 가전은 세계수출시장에서 한국제품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으로 영향으로 엔저에 따른 무역수지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

3) '엔화 가치 급락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현대경제연구원, 2013.5.24.)' 재인용

○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감소 압력이 존재

- 주요 산업별로 보면 엔/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국내 철강, 기계, IT 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
 -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일 경우 철강(-11.9%), IT(-1.8%), 기계(-1.7%)의 순서로 수출 감소 압력이 존재
 - 철강, 기계, IT, 기계 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한국산 제품과 일본산 제품의 수출경합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
- 반면 자동차, 가전 등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분석
 -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일 경우 자동차(+1.0%), 가전(+5.6%)로 다른 주력 수출 품목에 비해 엔저에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한국 기업에 비해 일본 기업의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진출 시기도 빨라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 비중이 절대적인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즉 엔저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동차 제품 가격경쟁력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존재
 - 또한 가전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일본을 넘어서 있어 환율 변동의 영향보다는 경기 변동이나 한국제품수요에 대한 추세적 상승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

○ 소비재 품목 수입은 단가하락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효과로 총수입 증가

- 자동차, 가전 등 소비재 품목 수입은 엔/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단가 하락으로 국내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
 -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소비재 수입중 자동차(+7.4%), 가전(+0.3%)의 수입 증대 효과가 전망
 - 이는 자동차, 가전 산업의 경우 수입물량 증가의 영향이 수입단가 하락의 영향보다 크게 작용함에 따라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 즉, 자동차, 가전은 수출 부문에서 엔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국내 수입시장에서는 일정부분 영향을 받는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대부분 중간재 수입은 수출침체에 따른 수입유발효과 축소로 수입 감소

- 국내 기업들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경우 수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유발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중간재 수입중 기계(-11.6%), 철강(-4.9%), IT(-0.7%)의 수입 감소 압력이 발생
 - * IT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중간재와 휴대폰 등의 소비재가 혼재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간재로 분류함
 - * 기계 산업은 자본재적 특성으로 환율보다 국내 투자 등 경기적 영향이 크게 작용. 수입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최근 국내 설비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판단
 - 이는 국내 수출의 수입유발효과가 높은 가운데 수출경기 침체로 중간재 수입이 위축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단, 석유화학은 국가간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수입선 대체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여 수입액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

<2013년 연평균 엔/달러 환율 100엔(연평균 20% 절하)시 주요 품목의 수출입 영향>

		수출증감률	수입증감률	무역수지 증감
총수출입		-2.6%	-2.5%	15억불↓
중간재 (자본재)	철 강	-11.9%	-4.9%	29억불↓
	기 계	-1.7%	-11.6%	33억불↑
	석유화학	-0.2%	9.2%	15억불↓
	I T	-1.8%	-0.7%	16억불↓
소비재	자동차	1.0%	7.4%	1억불↑
	가 전	5.6%	0.3%	7억불↑

주: 1) 증감률 및 무역수지 증감은 2012년 대비.
 2) 무역수지 증감의 ↑는 전년 무역수지 대비 증가, ↓는 감소를 의미함.

4) 2012년 산업별 무역수지는 석유화학 299억, 철강 62억, 자동차 420억, 기계 47억, 가전 80억, IT 615억 달러임.

3. 시사점

첫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급변동을 방지 대책 마련

- 글로벌 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정책 방향이나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 상존
-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국내 수출입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미세조정 및 환율 급변동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함

둘째, 단기적으로는 엔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와 외환 리스크 관리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급격한 엔저 현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운전 자금 부족이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유동성 지원 정책이 필요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경우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외환 리스크 관리 지원이 필요
- 한편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신시장 개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수출 기업과 현지 교민 사회와의 협력 체계 지원,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셋째, 중간재 수입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요 핵심 고기술 수입 중간재에 대한 국산화 노력이 필요

- 최근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산 중간재 수입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높은 대일 중간재 의존도 심화가 우려됨
- 중간재 수입은 국제 분업의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며, 엔저 현상으로 수입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 그러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해외 제품에 의존하는 행태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부작용을 미칠 수 있어, 주요 핵심 수입 중간재를 위주로 적극적인 국산화 노력이 요구

넷째,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화를 추진

- 특히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R&D를 통해 세계 선도 제품을 개발해 일본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주요 산업과 차별화된 신성장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조규림 선임연구위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

오준범 연구위원 (jbdevil@hri.co.kr, 02-2072-6247)

【별첨 1】 환율 변동이 주요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⁵⁾

○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엔/달러 환율 변동이 국내 총수출 및 주요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환율 및 세계경기 변수를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
 - 한국 총수출 및 주요 산업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원/엔 환율, 원/위안 환율 및 OECD 산업생산을 고려
 - 회귀분석 결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존 분석 결과를 이용('나홀로 원화 강세로 수출 경기 급락 우려(현대경제연구원, 2013.1.16.)' 참조)

- 회귀식

$$\ln Y_{i,t} = \alpha + \beta_1 \times \ln yen_{t-1} + \beta_2 \times \ln yuan_{t-1} + \beta_3 \times \ln OECD_t$$

단, $Y_{i,t}$ 는 t기 i산업 수출, yen_t 는 t기 원/엔 환율, $yuan_t$ 는 t기 원/위안 환율, $OECD_t$ 는 t기 OECD 산업생산 지수를 의미

- 추정결과

	β_1	β_2
철강	1.31***	0.50
석유화학	1.13***	0.74
기계	0.94**	1.10**
IT	0.87**	0.06
자동차	0.68*	0.38
가전	0.46*	-0.71*

자료: 한국은행 및 무역통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주요 산업 수출은 MTI코드 기준 석유화학 21, 철강 61, 자동차 741, 기계 71+72+73, 가전 82, IT 812+813+831+8361임

3) 분석기간: 1999년 1분기~2012년 3분기(단,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3분기~2009년 2분기 제외)

5) '나홀로 원화 강세로 수출 경기 급락 우려(현대경제연구원, 2013.1.16.)'에서 재인용.

【별첨 2】 환율 변동이 주요 산업별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6)

○ 국내 주요 산업의 수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엔/달러 환율 변동이 국내 산업별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환율, 국내수요, 수출수요 등을 이용해 산업별 수입물량 및 단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
- 산업별 수입물량의 경우 원/엔 환율, 국내수요, 수출수요, 산업별 수입단가는 원/엔 및 원/달러 환율, 국내수요, 유가를 설명변수로 설정

- 회귀식

$$\text{수입물량} : \ln imp_q_{i,t} = \alpha + \beta_1 \times \ln yen_won_{t-1} + \beta_2 \times \ln DD_t + \beta_3 \times \ln FD_t$$

$$\begin{aligned} \text{수입단가} : \ln imp_p_{i,t} = & \alpha + \gamma_1 \times \ln yen_won_t + \gamma_2 \times \ln won_dollar_t \\ & + \gamma_3 \times \ln DD_t + \gamma_4 \times \ln oil_t \end{aligned}$$

단, $imp_q_{i,t}$ 는 t기 i산업 수입물량, $imp_p_{i,t}$ 는 i산업 수입단가, yen_won_t 는 원/엔 환율, won_dollar_t 는 원/달러 환율, DD_t 는 국내수요, FD_t 는 수출수요, oil_t 는 유가를 의미

- 추정결과

	β_1	γ_1
석유화학	-0.05	0.28***
철강	-0.21***	0.72***
자동차	0.16	0.20
기계	-0.37***	0.35***
가전	-0.43***	0.03
IT	-0.21***	-0.14

자료: 한국은행 및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는 신뢰수준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주요 산업 수출은 MTI코드 기준 석유화학 21, 철강 61, 자동차 741, 기계 71+72+73, 가전 82, IT 812+813+831+8361임

3) 분석기간: 1999년 1분기~2012년 3분기(단,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3분기~2009년 2분기 제외)

6) 수출의 경우 ‘나홀로 원화 강세로 수출 경기 급락 우려(현대경제연구원, 2013.1.16.)’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였음.

【별첨 3】 환율 변동이 주요 산업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 엔/달러 환율에 따른 주요 산업별 2013년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증감 전망7) >

(단위: 달러)

		100엔	110엔	120엔
석유화학	무역수지 증감	15억↓	25억↓	36억↓
	수출증가율	-0.2%	-3.1%	-5.8%
	수입증가율	9.2%	7.3%	5.9%
철강	무역수지 증감	29억↓	28억↓	31억↓
	수출증가율	-11.9%	-15.1%	-18.0%
	수입증가율	-4.9%	-9.1%	-11.8%
자동차	무역수지 증감	1억↑	7억↓	14억↓
	수출증가율	1.0%	-0.9%	-2.6%
	수입증가율	7.4%	5.4%	3.9%
기계	무역수지 증감	33억↑	27억↑	20억↑
	수출증가율	-1.7%	-4.3%	-6.6%
	수입증가율	-11.6%	-12.8%	-13.5%
가전	무역수지 증감	7억↑	5억↑	3억↑
	수출증가율	5.6%	4.3%	3.1%
	수입증가율	0.3%	1.3%	2.3%
IT	무역수지 증감	16억↓	50억↓	79억↓
	수출증가율	-1.8%	-4.1%	-6.2%
	수입증가율	-0.7%	0.9%	2.1%

자료: 한국은행 및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원/달러 환율은 1,100원으로 가정

2)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가전, IT 산업의 수출 합계는 2012년 기준 총수출 대비 약 53.5%이며, 수입 합계는 총수입 대비 약 27.1%임

3) 무역수지 증감의 ↑는 전년 무역수지 대비 증가, ↓는 감소를 의미⁸⁾.

7) 주요 산업 수출은 MTI코드 기준 석유화학 21, 철강 61, 자동차 741, 기계 71+72+73, 가전 82, IT 812+813+831+8361임.

8) 2012년 산업별 무역수지는 석유화학 299억, 철강 62억, 자동차 420억, 기계 47억, 가전 80억, IT 615억 달러임.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연간	2012				연간	2013		
			1/4	2/4	3/4	4/4		1/4	연간(E)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3.1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6	2.5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0.7	2.2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5	4.8	
대외 거래	통관 기준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100	285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9	259
	수출(억 \$)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5	-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5)	(5.6)	
	수입(억 \$)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0)	(6.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2.5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6	1,085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